* 1 회 차

MEMO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외할먼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海溢)엔요.
[2]예쉰 살 나이에 스물한 살 얼굴을 한
[3]그러고 천 살에도 이젠 안 죽기로 한
[4]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5]생솔가지 울타리, 옥수수밭 사이를
[6]올라오는 해일 속 신랑을 마중 나와
[7]하늘 안 천 길 깊이 묻었던 델 파내서
[8]새각시 때 연지를 바르고, 할머니는

[9]다시 또 파, 무더기 웃는 청사초롱에
[10]불 밝혀선 노래하는 나무나무 잎잎에
[11]주절히 주절히 매어달고, 할머니는

[12]갑술년이라던가 바다에 나갔다가
[13]해일에 넘쳐오는 할아버지 혼신(魂身) 앞
[14]열아홉 살 첫사랑쩍 얼굴을 하시고

-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

(나)

[1]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다
[2]밤에도 흰 돛배처럼 떠 있다
[3]흰빛에 분홍 얼룩 혹은
[4]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
[5]더는 알 수 없는 빛도 스며서는
[6]손 닿지 않은 데가 결리듯
[7]담장 바깥까지도 훤하다

[8]지난 겨울엔 빈 가지 사이사이로
[9]하늘이 튿어진 채 쏟아졌었다
[10]그 하늘을 어쩌지 못하고 지금
[11]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매는가?
[12]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도 돋았다

[13]아무래도 이 꽃들은 지난 겨울 어떤,
[14]하늘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15]살림살이의 사연만 같고 또

[16]그 하늘 아래서는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 같은 것 들려서 내려온
[17]신(神)과 신(神)의 얼굴만 같고
[18]어스름녘 말없이 다니러 오는 누이만 같고

[19](살구가 익을 때,
시디신 하늘들이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영글어 올 때 우리는
늦은 밤에라도 한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보자
그런 어느 날은 한 끼니쯤은 굶어라도 보자)

[20]그리고 또한, 멀리서 어머니가 오시듯 살구꽃은 피었다
[21]흰빛에 분홍 얼룩 혹은
[22]어머니에,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친 굵은 실밥, 자국들

- 장석남, 「살구꽃」 -

(다)

[1]'내 마음은 호수'로 대표되는 은유는 흔히 '마음=호수'라는 등식과 함께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1 : 1로 대응되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2]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마음'을 '호수'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음'과 '호수'가 상호 작용하면서 사랑의 심리 상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3]이에 따라 다음 행인 '그대 노 저어 오오'도 실제가 아닌 은유적 의미로 읽히게 된다. [4]이는 은유가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쳐 관여하며, 은유의 본질이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생산과 창조에 있음을 보여 준다.

[A]
[5]이런 관점에서 (가)를 보면, '해일'이 일어난 것은 실제이지만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의 진술을 통해 '해일'과 '풀밭길'은 상호 작용하며 작품 전반에 걸쳐 각각 그 이상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6]이를 통해 '신랑'이 돌아오는 허구적 상황을 시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심정이 드러나며,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마당'은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재생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만나는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한다. [7]여기에는 순환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시인의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 [8]한편 (나)는 살구꽃이 핀 광경을 바탕으로 '살구꽃'과 바느질이라는 이질적인 속성을 연결하여 의미를 확장해 간다. [9]'살림살이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을 향한 간구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신(神)'의 위로가 '살구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10]따라서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닌 그 상처를 감싸고 꿰맨 봉합의 흔적이다. [11]결국 시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MEMO

MEMO

[12]이처럼 은유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의 차원을 넘어 층위가 다른 대상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주제에 관여하고 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세계 인식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3]이러한 은유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 낼 때 우리는 시가 주는 깊은 울림에 좀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계절의 변화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수미 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④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⑤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2 **[A]를 바탕으로 (가)의 해일과 (나)의 살구꽃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일'은 '풀밭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할머니'가 '신랑'을 '마중' 나가는 허구적 상황이 시적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군.
② '해일'로 인해 '바다'가 죽음의 공간에서 재생의 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보아, '해일'에는 영원성을 지향하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③ '살구꽃'은 '하늘'을 '여러 번씩 쳐다보던' 시선에서 비롯되는 상승의 심상과 '내려온'에서 비롯되는 하강의 심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④ '해일'은 '청사초롱'에 '불 밝'히는 '할머니'의 행위를, '살구꽃'은 '늦은 밤에라도' '불을 켜'는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 내어,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⑤ '해일'은 '마당'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구꽃'은 '마당'과 '하늘'의 사이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세계의 만남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군.

3 **(다)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어머니'를 바느질의 속성과 연결하여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② '굵은 실밥, 자국들'은 바느질의 속성을 통해 상처를 봉합한 흔적으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드러내며 주제 의식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틀어진', '꿰매는가', '꿰매 감친'과 같은 시어를 통해 바느질의 속성을 '살구꽃'과 연결하여 작품 전반의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살림살이의 사연'과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는 삶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며 삶의 위안적 존재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생성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흰 돛배처럼 떠 있'는, '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으로 나타낸 땅의 이미지를 '신과 신의 얼굴'로 변주하여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MEMO

MEMO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인간(人間)을 ᄯᅥ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2]니것도 보려 ᄒᆞ고 져것도 드르려코
[3]ᄇᆞ롬도 혀려 ᄒᆞ고 ᄃᆞᆯ도 마즈려코
[4]ᄇᆞᆷ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5]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뇨
[6]아ᄎᆞᆷ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나을소냐
[7]ⓐ 오ᄂᆞᆯ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ᄒᆞ랴
[8]이 뫼히 안ᄌᆞ 보고 뎌 뫼히 거러 보니
[9]번로(煩勞)ᄒᆞᆫ ᄆᆞᄋᆞᆷ의 ᄇᆞ릴 일이 아조 업다
[10]쉴 ᄉᆞ이 업거든 길히나 젼ᄒᆞ리야
[11]다만 ᄒᆞᆫ 청려장(靑藜杖)이 다 므디여 가노ᄆᆡ라
[12]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13]블ᄂᆡ며 ᄐᆞ이며 혀이며 이아며
[14]온가짓 소ᄅᆡ로 취흥(醉興)을 ᄇᆡ야거니
[15]근심이라 이시며 시ᄅᆞᆷ이라 브터시랴
[16]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져츠락
[17]을프락 ᄑᆞ람ᄒᆞ락 노혜로 노거니
[18]천지(天地)도 넙고 넙고 일월(日月)도 ᄒᆞᆫ가(閑暇)ᄒᆞ다
[19]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젹이야 긔로괴야
[20]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긔로고야
[21]강산풍월(江山風月) 거ᄂᆞᆯ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22]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23]ⓑ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예서 더ᄒᆞᆯ소냐
[24]이 몸이 이렁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앙정가」 -

(나)

[1]ⓒ 연하(煙霞)의 깁픠 든 병(病) 약(藥)이 효험(效驗) 업서
[2]강호(江湖)에 바리연디* 십년(十年) 밧기 되어세라
[3]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긔 성은(聖恩)인가 ᄒᆞ노라

〈제3수〉

[4]ᄃᆞᆯ ᄇᆞᆰ고 ᄇᆞ람 자니 믈결이 비단 일다
[5]단정(短艇)*을 빗기 노하 오락가락 ᄒᆞ난 흥(興)을
[6]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 알가 ᄒᆞ노라

〈제5수〉

[7]식록(食祿)을 긋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ᄒᆞ니
[8]혬 업슨 아히들은 괴롭다 ᄒᆞ건마ᄂᆞᆫ

[9]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내 분(分)인가 ᄒᆞ노라

〈제9수〉

- 나위소, 「강호구가」 -

* 바리연디 : 버려진 지.
* 단정 : 자그마한 배.

(다)

[1]나는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2]가끔 그들과 토론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3]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고집스런 취미를 비웃었다. [4]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5]나는 부득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금에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놓고 감상을 하였다.

[6]그러나 이것은 비록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다. [7]벽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맛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8]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였다.

[A]
[9]나는 종남(終南)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10]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 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고 차가웠다. [11]나는 대청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12]다시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소나무, 회양목 등 작은 놈만 골라 심었다.

[13]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 자가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통으로 끌어다가 땅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 나오게 하였다. [14]그러자 물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다. [15]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인 물인 줄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펑펑 솟아나는 것을 보며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16]산을 좋아했던 옛사람들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든 이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인 이도 더러 있었는데, 집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인 경우가 많았다. [17]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여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18]ⓓ 작지만 큰 산을 본떴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었다.

[19]이 연못은 겨우 너비가 두어 장(丈)이고 깊이도 두어 자밖에 안 되며, 산 높이는 다섯 자이고 둘레는 일곱 자이며, 폭포의 높이는 두 자인데 나무들의 크기는 서너 치쯤 되어 마치 높은 산을 축소하여 만든 것 같았다. [20]산골짜기는 그윽하고 폭포가 두어 장 되는 연못을 깊은 바다로 알고 떨어진다. [21]ⓔ 이 축소된 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산수화에 뛰어난 저 당나라

MEMO

MEMO

의 정건이나 왕유 같은 이도 다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22]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23]필경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진가(眞假)를 논하겠는가? [24]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25]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은데 듣기는 싫은 것이 있다.

[B] [26]그런데 이곳의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이웃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에 맞다고 할 것이고,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이 바라보아도 싫증 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7]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쏴아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28]나는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아름다운 것들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관현악기 같은 악기의 소리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29]그러나 다만 이 샘물로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하면서도 멋이 있다. [30]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 채수, 「석가산폭포기」 -

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와 (나)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다) 모두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다)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5 **<보기 1>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1

선생님 : (가)와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들이 귀향한 후의 삶을 표현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시가의 특정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요. 두 작품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보 기 2

ㄱ.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ㄷ.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ㄹ.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 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주변에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② ⓑ :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③ ⓒ :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④ ⓓ :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석가산을 만든 것에 대한 보람이 나타나고 있다.
⑤ ⓔ : 자신이 만든 석가산과 폭포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MEMO

MEMO

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요산요수(樂山樂水)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기 집 정원에 산을 본뜬 조형물인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었든 사람이 만들었든 간에 본질은 같기 때문에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은 석가산을 완상하면 산의 진경(眞景)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① 글쓴이는 노쇠하여 산과 물을 직접 찾기 어렵게 되자 별장의 정원에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고 있군.
② 글쓴이는 요산요수를 위해 연못의 한가운데 석가산을 만들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군.
③ 글쓴이는 산수화를 모아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산의 진경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④ 글쓴이가 진가를 논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군.
⑤ 글쓴이가 석가산의 샘물에서 비롯된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한 것은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고충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군.

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A]에서 발생한 내적 갈등을 [B]에서 해소하고 있다.
② '나'는 [A]에서 한 행위로 인해 [B]에서와 같은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③ [A]의 '계단'은 관념적 소재에, [B]의 '절벽'은 실재적 소재에 해당한다.
④ [A]의 '사람들'은 '물'을 긍정적으로, [B]의 '이웃들'은 '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⑤ [A]에서는 '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B]에서는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MEMO

[앞부분 줄거리] 김진옥은 승전 후 귀국하던 도중 풍랑으로 표류했다가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된다. 남해 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진옥은 등곡 용왕을 물리친다. 이때 무양 공주는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선영, 정동한 등과 계교를 짜 김진옥의 아내 유 부인과 아들 애운을 죽이려 한다. 용궁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려 한다.

[1]용왕 왈,

[2]"이는 수중의 귀한 보배라.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엄동설한이라도 춥지 않을 것이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칠십이 넘도록 녹발(綠髮)이 장춘(長春)이요, 또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환생하나니, 이는 극한 보배로소이다."

[3]원수가 사양하다가 받으니, 용왕 왈,

[4]"원수는 대국의 신하라. 수부에 들어와 과인의 수부를 보전케 하니, 어찌 천자께 현신을 두신 치하를 아니하리오."

[5]하고, 글월을 닦아 원수께 부치고, 예단을 봉하여 주니, 원수가 사례하고 받으니, 일광노가 왈,

[6]"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하리오."

[7]하고, 일광주(日光珠) 한 낱을 주고, 여동빈은 또 한 낱 부채를 주어 왈,

[8]"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운무가 자욱하고, 비 올 때에 부치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나니, 이는 큰 보배라. 그대는 잘 간수하라."

[9]하고, 두목지는 칼 하나를 주며 왈,

[10]"이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낮 같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할지니 가져가소서."

[11]이적선이 또한 금표통(金瓢桶) 하나를 주며 왈,

[12]"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분로주라 하는 술이 있으니, 천만인이 먹어도 진(盡)치 못하나니 가져가라."

[13]하니, 원수가 받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별하고 용왕께 하직하고 부친을 모셔 길을 떠나 황성으로 향하여 오더라.

[14]각설, 차시에 무사가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애운이 통곡 왈,

[15]"우리 모친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로 데려가노. 우리 모친도 야속하시도다."

[16]하며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잔잉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달래어 왈,

[17]"진실로 가련하다. 천자의 명이 급하시니 우리 어찌 거역하리오."

[18]하고,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가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소소(昭昭)한 창천(蒼天)이 굽어살피실지라.

[19]용왕이 그 강의 용신(龍神)에게 칙지를 내리사 물에 들어온 아이를 살

MEMO

리라 하시니, 용신이 오직 칙지를 받자와 물 밖으로 도로 내치니, 애운이 정신이 아득한 중 물을 무수히 토하고 모친을 부르고 동서로 방황하더라.

(중략)

[20]무사가 달려들어 거상(車上)에 실으려 하니, 난영이 소저를 붙들고 슬피 통곡하여 왈,

[21]"가련하고 애닯을사, 유 부인 같은 요조숙녀 이렇게 참혹히 원사(冤死)할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오. 천지신명과 일월성신과 황천후토(皇天后土) 굽어살피옵소서."

[22]하고, 낭자를 붙들고 방성통곡하며, 남녘을 멀리 바라본들 그림자나 있으리오.

[23]한참 이렇듯 힐난할 제, 선영과 동한 등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바삐 베라.' 재촉이 성화 같으니, 무사가 달려들어서 수레를 재촉하더라.

[개] [24]각설,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하여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 대답 왈,

[25]"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도사공으로 하여금 계명(鷄鳴) 전에 다 올려 가게 했사오니,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가내하*로소이다."

[26]원수가 차언을 듣고 앙천 탄식하며 화산을 향하여 배례 왈,

[27]"이 강은 길이가 만 리요, 너비가 삼십 리라. 몸에 날개가 없으니 어찌 건너리이꼬. 선생은 진옥의 사정을 급히 살피소서."

[28]하고 무수히 배례하더니, 이때 화산 도사가 천지 산간에서 낭자를 죽이려 하는 거동과,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대경하여 급히 조화를 부려 일엽소선을 지휘하여 빨리 강변에 닿으니, [29]원수가 대희하여 그 배를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히 종남산을 바라고 말을 짓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30]장안 삼거리에 무수한 사람이 삼대같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오색 기치를 세우고 한 수레 위에 한 부인을 달았거늘, 원수가 생각하되,

[31]'이는 반드시 부인이로다.'

[32]하고 금편을 들어 말을 치니, ㉢<u>이 말은 비룡마(飛龍馬)라.</u>

[33]순식간에 살같이 달려 법장(法場)에 다다라 살펴보니, 부인은 기절하였고 무사는 시각을 기다릴 제, 한 대장이 비룡마를 타고 나는 듯이 달려들어 일진(一陣)을 헤치고 수레를 박차며 낭자를 안고 슬피 울거늘, 정동한 등이 대경실색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34]원수가 낭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진정하여 울며 왈,

[35]"부인아! 부인아! 김진옥이 여기 왔나니, 부인은 정신을 수습하옵소서."

[36]하니, 이때 애운이 곁에 앉아 울며 왈,

[37]"한강수에 빠져 죽었던 애운이 여기 왔나이다. 모친은 진정하옵시고

부친을 뵈옵소서."

[38]하고, 얼굴을 한데 대고 뒹굴며 통곡하니, ㉣천지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39]㉤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오.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통하며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운의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40]원수가 그 모자의 경상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천하여 동한 등을 잡아 급히 죽이려 하되, 일반 대관(大官)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십분 잉분(仍憤)하고 오직 부인을 구호하여 집으로 돌아오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 무가내하(無可奈何)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9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 부인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 부인을 구했다.
② 김진옥은 유 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한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③ 용왕은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고 있다.
④ 난영은 유 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
⑤ 애운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무사는 애운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다.

10 **[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인공이 난관에 처한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여 주고 있다.
② 주인공의 심정과 조응하는 배경을 묘사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③ 상황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나타내어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④ 주인공과 주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나타내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알려 주고 있다.
⑤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제시하여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MEMO

MEMO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진옥전」은 이질적 세계라 할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중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 둘째,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제시하여 두 세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①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김진옥이 '진주'를 활용하여 유 부인을 살리는 것은,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재를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김진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전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은,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건을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은,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김진옥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내 두 세계의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 모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과 ㉤ 모두 독자로 하여금 뒤이어 일어날 사건을 짐작게 하고 있다.
③ ㉠은 ㉤과 달리 인물의 처지에 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과 달리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⑤ ㉢은 ㉣과 달리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그저께 장인과 통화했어."

[2]문식은 새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3]무슨 말을 또 하려는 것인가. [4]자영은 이제 문식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5]마치 매일 스스럼없이 문안 전화를 하는 사위인 양 천연스런 저 태도. [6]문식과 자영이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자영의 집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7]손님처럼 깍듯한 예의를 지키면서 방문하는 명절, 제삿날, 집안의 경조사……. [8]자네 왔는가. [9]잘 가게. [10]그 두 마디가 집을 나올 때까지 문식이 듣는 말의 전부인 그 방문을 지속시킨 것은 문식의 생각이었다. [11]문식은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지만 실은 앙갚음의 하나라고 자영은 짐작하고 있었다. [12]모르는 사람에게는 빈틈없는 사위가 되는 것. [13]문식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14]"별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 [15]그렇지만 다른 때처럼 그냥 끊지는 않으시더군."

[16]문식의 말에서 자영은 그가 아버지에게 전임이 될 거라는 말을 했음을 안다.

[17]"손주 보실 거라는 얘긴 미처 못 했는데 뭐라 하실지 궁금하네."

[18]말끝에 문식은 후후 웃는다. [19]대단한 복수가 아니야? [20]문식의 웃음 속에 담긴 음흉함을 엿본 듯 자영의 얼굴이 왈칵 붉어진다. [21]그토록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랐으면서 이 뒤틀리는 감정은 무엇인가. [22]자신이 한 말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찬찬히 그녀를 응시하는 문식의 부드러운 눈을 자영은 오래 마주 볼 수가 없다. [23]그는 참으로 잘 견뎌 냈는데. [24]언제고 팽개쳐 버리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는데. [25]스물몇 해를 길들었던 안락함이 그리워 몸부림치며 불시에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싶어, 그것이 두려워 늘 잃을 것 없는 ㉠방을 꼭꼭 잠그며 살았는데…….

[26]자영은 이제 그만 가자고 말한다. [27]휘황한 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더 마주하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28]커피 대신 마신 코코아의 들척한 기운이 메슥하게 목구멍을 넘어왔다. [29]그를 닦달할 수도 없다. [30]전임이 되는 것. [31]아버지와 화해하는 것. [32]아이를 가진 것. [33]이 모든 사실은 그의 공이며 이런 일로 그를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34]"그래, 일어날까?"

[35]비칠, 하며 일어서는 자영에게 문식이 손을 내밀었다. [36]그녀를 향한 문식의 손은 희다. [37]부드러워 보이며 따뜻하기도 하리라. [38]그 손을 맞잡지 못하고 자영은 물끄러미 내려다보기만 한다.

(중략)

[39]머쓱한 얼굴로 손을 거둔 문식이 문을 향해 걸어간다. [40]자영은 긴 숨을 내쉬고 그 뒤를 따라 찻집을 나왔다. [41]막 지기 시작하는 낙엽이 바람에 휩쓸리는 길을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42]전철역 앞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문식의 창백한 옆얼굴을 훑고 지나간다. [43]시든 꽃을 거

MEMO

MEMO

두는 꽃장수와 신문 판매대의 남자가 그들을 힐끗 돌아보았다. [44]㉡서너 걸음 떨어져 문식을 쫓으며 자영은 망설였다. [45]이것은 소리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 [46]그가 저렇게 곧게 고개를 들고 걷는 것은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뜻이다. [47]그에게로 다가가서 팔짱을 끼자. [48]어렵다면 아무 말을 하지 않은들 어떠랴. [49]그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50]그러나, 그러나…… 무언가가 자영을 망설이게 했다. [51]그녀의 안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억센 힘이 문식에게로 내뻗는 ㉢팔을 부여잡았다. [52]어스름한 전철역 안에 들어설 때까지도 자영은 그를 따라잡지 못하고 만다.

[53]때르르릉. [54]귀를 때리는 경고음에 이어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55]드문드문 서 있던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며 선로가로 모여들었다. [56]문식은 힐끗 그녀를 돌아본다. [57]그 눈에 서린 간절함을 자영은 보았다. [58]찌든 생활을 떨치고 날아가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보았다. [59]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손짓을 하는 그의 주머니 속의 손을 보았다. [60]이제라도 그가 손을 뻗어 온다면 자신은 그 손을 마주 잡아야만 할 것 같았다. [61]그 숨 막힐 듯한 흡인력을 자신은 어쩌지 못할 것 같았다. [62]내가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는 내게로 올까. [63]와서 나를 부축해 줄까. [64]자영은 문식의 타오르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65]그는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는 물러서지 않을 듯 보였다. [66]아아, 저것이 문식이다. [67]어떤 것도, 아무런 사람도 그를 막을 수는 없다. [68]기차가 들어오기까지의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문식을 향한 사랑을 느낀다. [69]그는 떠나갈 것이다. [70]내가 이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다 할지라도. [71]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2]드륵 열리는 문으로 사람들의 바쁜 그림자들이 빨려 들어간다. [73]㉣노란 선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문식이 결심한 듯 문 안으로 들어갔다. [74]돌아서서 그녀를 보고 우뚝 선 문식의 얼굴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75]그 눈은 호소하듯 그녀를 향해 열려 있었다. [76]그러나 그 얼굴은 지쳐 보였다. [77]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78]다시는 열리지 않을 기세로 문이 닫히고 이윽고 철커덕 소리 내며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79]문식의 호소하는 듯한 눈이 미끄러지듯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80]환한 빛 더미들이 터널 속 깊고 긴 어둠으로 한칸 한칸 사라지는 것을, 마침내 마지막 잘린 빛이 삼켜지고 동굴 같은 어둠이 남는 것을 자영은 묵묵히 바라보았다. [81]㉤무덤가를 지나온 듯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82]또 다른 열차의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83]그녀는 몸을 돌려 역을 빠져나왔다. [84]그리고는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또각또각 걸어 나갔다.

- 서하진, 추일 서정 -

13 윗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볼 수 <u>없는</u> 것은?

① 현재 시제의 문장을 활용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여 준다.
② 독백체의 문장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③ 짧은 호흡의 문장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적 긴장 상태를 드러낸다.
④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⑤ 서술의 주체가 되는 등장인물의 교체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14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문식'은 '아버지'에 대해 애증을 가지고 있다.
② '자영'은 '문식'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
③ '자영'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④ '문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⑤ '문식'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자영'이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인물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 :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공간적 거리로 나타낸다.
③ ㉢ :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④ ㉣ : 두 인물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⑤ ㉤ : 주인공이 벗어나려는 상황을 상징한다.

MEMO